

학생 · 교직원 · 학부모 · 주민이 조합원

전주혁신도시 양현고 학교협동조합 YHAM(얌) 개소식... 매점 운영 등 사회적경제 동아리 활동 추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 인근 주민 등 학교 구성원 모두가 조합원으로 참여해 수익을 창출하고 거둬들인 수익금은 학생들의 복지와 이웃사회 환원 등에 활용하는 학교협동조합이 전주 혁신도시에 설립됐다.

전주시에 따르면 전주혁신도시에 위치한 양현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한 학교협동조합인 '양현고등학교 사회적협동조합 YHAM(얌-Yang Hyeon Amazing Market)'은 4일 3층 학교매점에서 학생, 학부모, 교직원 및 지역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소식을 가졌다.

학교협동조합은 초·중·고교에서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 주민이 조합원으로 참여해 협동의 가치를 바탕으로 윤리적 경제 활동 및 소통과 나눔의 교육을 통해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교육경제 공동체를 의미한다.

양현고 사회적협동조합 YHAM은 지난 해 9월 창립총회를 거쳐 지난 1월 교육부의 설립 인가를 받아 운영, 학교 내 매점 운영과 학습도서 구입, 사회적경제 동아리 활동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YHAM은 △교복과 도서 등의 물품 공동구매 △교복 및 참고서 나눔 활동 △수학여행 및 체험학습 운영 △사회적경제 교육활동 및 학생 동아리 활동 △지역사회 공동체 구성 등의 사업을 통해 창출한 이익을 학생들이 좋은 환경속에서 학습할 수 있는 복지환경 구축과 지역사회 나눔 등에 활용해 지역 선순환 경제구조를 만들어 나가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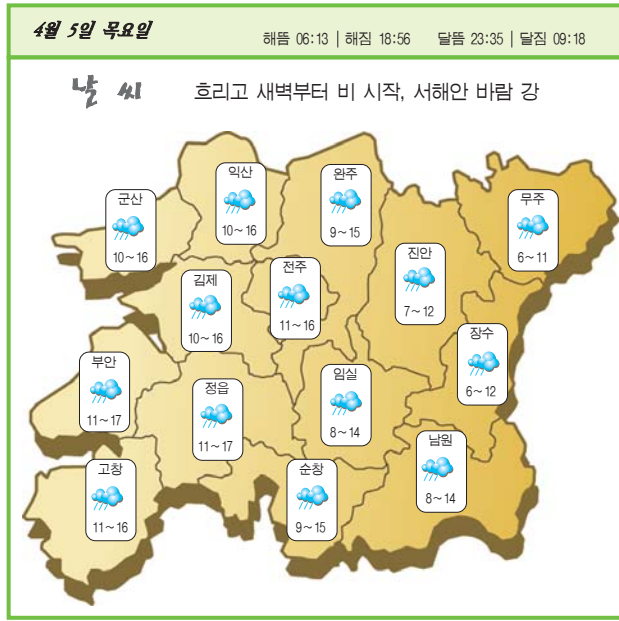


콩나물 의무자조금 출범식 4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콩나물 의무자조금 출범식에서 참석자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사진=농촌진흥청 제공)

또한 학교 구성원인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지역주민이 함께 당면한 교육 문제를 스스로 해결함으로써 교육 자치도 실현할 수 있다. 또 학생들이 민주적인 과정을 통해 직접 사업체를 운영해 봄으로써 실제 경제활동을 경험할 수 있는 경제 교육의 장이 될 것으로도 기대했다.

교육 공동체의 중심을 넘어 지역공동체의 중심점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했다. 시와 전주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오는 9일에는 전북도교육청 2층 강당에서 열리는 학교협동조합 정책 포럼에 참여해 학교협동조합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자리를 가질 예정이다.

명회와 찾아가는 학교협동조합 청소년 교육 및 캠프 운영, 사회적경제 청소년 동아리 지원, 학교협동조합 선진지 견학, 학교협동조합 전문 컨설팅 등의 사업을 지속할 계획이다. 한편 학교협동조합 관련 교육 및 지원 관련 사항은 전주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교육홍보팀(063-281-9316)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채규남 기자



도교육청, 4·16세월호참사 추모 행사

전북도교육청은 4월 한 달을 '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념의 달'로 정하고 '적극적 기억, 희망을 말하다'를 주제로 다양한 추모 행사들이 진행된다. 전북교육청은 4월 한 달 간 릴레이 캠페인을 실시한다. 페이스북에 손글씨로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분들을 기억하겠습니다. 적극적 기억 희망을 말하다"를 써서 사진을 올리는 SNS 릴레이 캠페인과 학생들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희망을 쓴 쪽지를 '희망의 배'에 넣고 전달하는 릴레이 행사도 진행된다. 또한 도교육청 1층에 '하늘나라 우체통'이 운영되어 학교에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계기교육 후 학생들

이 희생자 추모 또는 희망의 편지를 하늘나라 우체통에 보내면 이를 모아 전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7일에 도내 고등학교 35명이 경기도 안산교육지원청에 마련된 '416 단원고 기억 교실' 방문 및 세월호참사 정부합동분향소에 둘러 분향을 할 예정이다. 13일 오후 6시부터 도교육청 앞마당에서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념식을 갖는다. 이날 추념식에는 학생들의 합창 등 추모 공연이 진행된다. 학교에서는 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 계기교육과 함께 희생자들을 위한 다양한 추모 활동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삼민 기자

결혼이민자 요양보호사 양성교육

전주시가 결혼이주여성들의 경제적 자립과 지역사회 정착을 돕는다. 전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4일부터 오는 6월 1일까지 결혼이민자 8명을 대상으로 요양보호사 양성과정 교육을 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자격취득 과정은 전주성모간호교육학원에서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회 진행, 이론과 실습 등 총 240시간의 과정으로 운영된다. 자격취득 과정은 전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비용을 전액 지원하며 수강생들은 교육수료 후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자격증을 취득하게 된다. 앞서 전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지난 달 28일 오리엔테이션을 열고 지원서 작성과 교육에 필요한 서류, 수업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공지사항을 전달했다. /채규남 기자

전주시 공영자전거 이용자 2배 이상 늘어

대여소 6곳, 3월 한달간 1506명 이용... 1회 이용료 1000원으로 인하

전주시 공영자전거 대여소 이용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지난 3월 한 달 간 한옥마을 치명자산 임시주차장과 전주향교 앞 전주천변, 르윈호텔 맞은편 간담대 작은도서관 입구, 전주자연생태관 입구, 전주시자원봉사센터 부근 전주천변 등 6곳에 위치한 공영자전거 대여소를 총 1506명이 이용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지난 해 3월 636명이 이용했던 것과 비교하면 2.3배나 증가했다. 겨울철 중단됐던 공영자전거 대여소 운영을 재개한지 불과 한 달 만에 이용객이 크게 증가한 만큼 봄나들이를 즐기는 시민과 관광객이 늘어나면 공

영자전거를 이용하는 이용객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했다. 6개 공영자전거 대여소에는 214대의 자전거가 비치돼 있으며 이용요금도 1회 1000원으로 기존 1시간에 2000원하던 요금을 대폭 인하했다. 또 1회 대여시간도 대여소 운영시간 내에서 제한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올해부터 휴대전화 인증만으로 6개 대여소 어디서나 대여와 반납이 가능하도록 운영방식도 간소화했다. 또한 대여소 직원들을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매일 자전거 수리·점검반이 6개 대여소를 순회하며 자전거 유지관리에도 힘쓰

고 있다. 동시에 공영자전거 보험에도 가입해 공영자전거 이용객이 안전사고 걱정없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어 4월 중 열리는 시민 자전거 행진 시 무료체험단을 모집하고 시민들이 공영자전거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한편 공영자전거 대여소 운영시간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매주 월요일은 휴무일이다. 운영시간은 일몰시간을 고려해 하절기와 동절기에는 탄력적으로 운영되며 만 14세 이하 이용자도 보호자와 동반할 경우 이용할 수 있다. /채규남 기자

교육취약학생 지원체계 구축 유관기관 간담회

전북도교육청과 전북도청이 교육취약학생의 가족중심 맞춤형 통합지원 위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4월 3일 전북도청 3층 회의실에서 도교육청 및 도청 업무 담당자, 14개시·군 교육지원청 교육복지담당자와 시·군청 드림스타트 및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교육취약학생 맞춤형 통합지원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된 이날 간담회에서는 전북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과 전북도청 드림스타트,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사업과 지역 협력 현황을 서로 공유했다.

또한, 지역별 협의를 통해 지역별 후속 간담회 및 향후 교육복지우선 지원사업과 지자체, 지역 유관기관 간에 교육취약학생들의 통합 사례관리나 맞춤형 지원을 위해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했다. 도교육청 내영성 과정은 "이번 간담회는 교육청과 지자체, 유관기관이 교육취약학생들의 통합지원 협력에 대한 공감대를 확고히 하고, 소외된 지역 없이 교육취약학생들에게 필요한 통합 지원을 위해 교육지원청(학교), 시·군청, 지역기관들이 노력하기로 하고, 지역별로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초석을 마련한 자리였다"고 밝혔다. /이삼민 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